

“세월호, 크레인 2대 동원 누운 상태 통째로 인양”

기술검토 TF팀 연구결과 발표...빠르면 내년 하반기 세우면 선체 파괴 위험 크레인+이동+플로팅 독 방식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누워 있는 상태 그대로 통째로 인양하는 방법이 유력하다는 결론이 발표됐다. 해양수산부 산하 민·관합동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지난 10일 1박 2일간의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기술검토 TF는 “최종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세월호 인양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최초로 선박 전체를 통째로 인양하는 방식인만큼 위험·불확실성도 존

재한다”고 밝혔다. 기술검토 TF는 “실제 인양방식은 크레인과 플로팅 독을 쓰는 우리 검토 결과를 반영하겠지만, 업체 선정 및 설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 크레인+이동+플로팅 독 ‘누운 채 통째로 인양’=기술검토 TF 조사 결과 세월호는 수심 약 44m 지점에 뱃머리를 동쪽 53도 방향으로 두고 좌측면이 바다에 닿게 누워있다. 좌측 뒷부분은 충격에 의해 변형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월호 선체 외부탐사 재현 결과 6825t 급인 세월호는 출항 당시 무게는 9689t, 침몰 후에는 조류·벨 흡착력 등을 고려했을 때 수중 8400t, 물 위에서는 약 1만 200t으로 추정된다. 기술검토 TF는 세월호를 누워있는 상태 그대로 크레인 두 대(1만t+8000t)를 동원해 3m 들어 올려 수심이 낮은 동거차도 쪽으로 끌어올리고 플로팅 독 위에 얹어 인양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고 제안했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려면 선체파괴 위험이 있고 과정이 더 복잡하다는 이유다. 구체적 방법은 ① 세월호 우측면에 93개 구멍 뚫어 내부 구조물에 와이어 연결 ② 크레인 두 대로 3m 들어 올림 ③ 동거

차도 쪽 수심 30m 지점까지 2.3km 이동 ④ 플로팅 독 위에 올리고 크레인 철수 후 물 위로 부상하는 방식이다.

◇ “빨라야 내년 하반기 수면 위로”=기술검토 TF는 유가족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달 말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양결정이 내려지면 인양업체의 기술제안서를 받고 계약하는 데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업체 선정 후 실제 인양까지는 평균 1년이 걸릴 전망이다. 업체가 세월호 내부 등 현장조사를 통해 인양 작업 설계하는데 2~3개월이 걸리는데 해당 기간에 세월호에 남아있는 기름(1천200t, 194kg) 제거작업이 병행 될 수 있

다. 세월호에 구멍을 뚫고 인양점에 잠수사들이 와이어를 연결하는 등 수중 작업은 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달 말 인양이 결정되면 세월호를 물 위로 끌어올리는 건 빨라야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11월 말~1월은 잠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내에 착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은 “인양작업이 2년이 걸리면 2000억원, 3년이 걸리면 3000억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크레인 두 대의 하루 임대료는 10억원이며, 최소한의 조건일 때 20~30일 정도 사용할 계획이어서 크레인 비용만 30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한편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 “(세월호 인양 평가)최종 결과도 중간결과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인양이 충분히 가능함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지난 10일 진도군 팽목항에서 세월호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양 최종 결정을 위해서는 기술검토를 완료한 이후에도 가족과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군이 여론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다른 방식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내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기억의 숲' 첫 삽

세월호 추모의 숲 조성을 제안한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 아들 선(맨 왼쪽)이 지난 10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백동 무궁화동산에서 열린 추모숲 준공식에 가족들과 함께 참석, 은행나무를 기념식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대통령, 세월호 추모식 참석 후 남미 4개국 순방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6일 오후 콜롬비아·페루·칠레·브라질 등 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인 당일 출국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주칠기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1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16일 오후 출발해서 27일까지 중남미 순방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수석은 “이들 4개국은 한·중남미 및 한태평양 파트너십의 핵심국가로 박 대

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각국 정상과 회담을 하고 실질 협력 제고 방안을 포함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들 국가와의 오랜 협력 기반을 새롭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세월호 1주기 추모 일정과 관련 “박 대통령은 1주기 행사와 관련된 일정을 고려하고 있고, 그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출국하는 것을 놓고 유가족과 야당

에서는 문제제기를 해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게 얹고 약속도 지켜진 게 없는데 첫해부터 자리를 피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참사 1주기 바로 그날 떠나겠다는 박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철화를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ikpark@

트리폴리 韓 대사관에 IS 추정 공격

경찰관 2명 사망·1명 부상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12일(현지시간) 오전 1시경 무장괴한의 공격을 받아 현지 경찰관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와 신화통신에 따르면 차를 타고 지나가던 무장 단체가 트리폴리 대사관 앞에서 기관총 40여발을 난사해 경비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리비아 내무부 소속 외교단 경찰관 3명이 총에 맞았다.

이 단체는 사건 직후 곧바로 도주했고, 총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들이 경찰관들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2명은 숨졌다. 트리폴리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2명과 행정원 1명 등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가해 차량이 대사관을 겨냥했는지, 리비아 경찰관을 겨냥했는지 현재로서는 의도를 알 수 없으나 대사관 외벽을 제외하면 피해가 없다”고 전했다.

총격을 가한 무장 단체는 이슬람 수니

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로 추정된다. 사건 발생 2시간 후 IS 리비아 트리폴리 지부를 자처하는 단체가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랍어로 “IS군은 한국 대사관 경비 2명을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신화통신도 “이번 사건은 IS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공격의 원인이나 동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사관 측은 사건 직후 철제한 수사와 함께 경비인력 증원을 요청, 이날부터 외교단 경찰 소속 특수경호대원들이 파견돼 순찰을 돌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공관원의 안전 철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세호 아버지’ 1면에서 계속

모든 부모가 그렇듯 제세도 그 날, 4월 16일 잊지 못한다. 삶도 달라졌다. 조선소를 다니던 그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 날 이후로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누군가 수학여행 가던 아이들이 탄 배가 가라앉았다고 했다. 조선소 밥을 먹은 지 2년, “수천 톤 배가 넘어질 리가 없다”며 믿지 않았다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 전화를 받았다. 진도 팽목항으로 달려온 뒤,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넘겼던 사실이 현실화될 줄 알았다.

예기를 하는 제세에게서 담배와 술 냄새가 훅 풍겼다. “1주일만에 9kg가 빠진 아버지 보기가 안쓰러웠나 봅니다.”

사고 19일 만에 세월호 4층에서 발견된 아들 예기를 하면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5월 5일 어린이날, 그는 아들의 DNA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그 때 이후다. 제씨는 아들과의 약속을 했고 숨겨진 진실

찾기에 나섰다.

“진상 규명”,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바른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면, 당장 술이라도 한잔 사주고 싶다”라고 했다.

그의 가장 안에서 ‘2014’라고 적힌 ‘세월호 재판일지’가 눈에 띄었다. 재판이 열릴 때면,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변호인들의 말을 받아 치던 기자들 옆 자리에 조용히 앉아 그 때마다 주요 발언을 기록했던 노트다.

달력에는 첫 공판이 열렸던 지난해 6월 10일부터 적혀 있다. 피고인 뿐 아니라 ‘송모 A병원 간호사’, ‘B오하나마호 선장’ 등 중인 신문 기록도 꼼꼼히 적혀 있다. 반별로 희생자와 실종자 수를 표기한 ‘단원호(세월호) 희생자 수습 및 생존 상황’이라는 문구 위에 ‘15명은 다 살았음(금수)’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린 것이 살인이 아니면 뭐냐.” 그가 이해할만한 답을 누가 해줄 수 있을까.

송정역 KTX 야간승객 이송 광주시, 심야버스 시범운영

광주시가 수도권 등지에서 광주송정역에 밤늦게 도착하는 KTX 이용객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심야버스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심야버스는 첨단-일곡-문흥지구 등을 경유하는 상무22번 노선과, 광천-터미널-문화전당-산수오거리 등을 경유하는 공항1000번 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운행시간대는 KTX가 심야시간에 도착하는 밤 11시06분과 새벽 0시11분에 맞춰 모두 4대다.

상무22번 노선은 KTX 이용률이 높은 금·토요일에만 심야 운행하고, 공항버스는 매일 심야버스를 운행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서비스”라면서 “시범운행을 통해 계속 운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